



청응면, 일손 부족한 복숭아 농가 방문·봉사

입실군 청응면은 청응면사무소, 군청 기획담당관, 여성청 소년과 직원 15명이 함께 농촌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응면 소재 복숭아 농가를 찾아 적기에 열매 수기 등 과실 생육에 도움을 주고자 일손돕기에 나섰다.



남원소방서, 여름철 피서지 합동점검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와 남원시가 다가오는 피서철을 대비해 지역 내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피서철 철을 앞두고 남원시 산내면 소재 토비스 아영장을 비롯 6곳의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와 소방서 담당자들이 참여해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상태, 안내표지판, 안전책임자 지정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진안 마령면 자원봉사단, 집 청소 봉사 실시

진안군 마령면(면장 정성화)은 28일 마령면 자원봉사단(단장 채권자)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정을 방문해 대대적인 집 청소 봉사를 펼쳤다. 대상 가구는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환경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알림

▲고품질 스피치 기법·스피치 최고기초사·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 장소: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대상: 대학생·일반성인 남녀, 모집방문: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http://lejeu.kr), 문의: 063-285-6676·281-7246·010-07304-5665.

무주군 공무원들 현장으로 뚝다!

담당 읍면 찾아가 돕는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 자율 참여제' 실시

무주군 공무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분주해진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일손창구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 자율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희망농촌 공무원 봉사활동 자율 참여제'는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담당 읍면 농가들을 찾아 열매수기, 일 따기 등을 돕는 것으로 봄철은 6월 30일까지, 가을철은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18개 실·과·소 공무원 5백여 명이 무주읍(기획실,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과 무풍면(자치행정, 농업정책, 의회사무, 시설사업소), 설천면(문화관광, 농축산유통), 적상면(재무, 산림복지, 의료지원), 안성면(사회복지, 건설, 농업지원), 부남면(민원봉사, 기술연구, 맑은물사업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일손 거들기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현장에 가 보니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제때 농사를 꾸려 나가지 않을 뻔했다"며 "서툴고 더딘 손길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5~6월) 사과와 복숭아, 옥수수 등 대규모 일손이 필요한 주요 작물의 인력 수요는 1,512농가 1만 7천여 명으로, 무주군은 농업정책과 내에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농촌봉사활동 창구 운영)해 인력 수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는 제7733부대 제4대대장 및 간부 등 군 인력 265명이 46농가에서 고추심기와 과수 꽃따기 작업을 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소방서 직원 일동, 김제사랑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학재단(이사장 박준배)에 따르면 28일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현) 관계자들이 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402만5,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을 위해 김제소방서 전 직원 157명이 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김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진압 및 구급·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방의식을 고취시켜 왔다. 또한, 김제소방서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위기 대응 자원봉사를 운영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현 서장은 "김제시의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 기탁에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김제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편, 김제사랑학재단은 현재 약 283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지평선학당 운영 및 김제 지평선장학수업 운영 등 지역 우수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진안 용담대교 물에 빠진 사람 구조 성공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8일 오전 7시 11분경,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용담대교 아래에서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 완료했다. 무진장소방서에 따르면, 상기장소를 지나가자니가는 행인이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용담대교 아래 수면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다. 무진장소방서는 차량 3대(진안구조대, 진안펌프, 안전구급대), 인원 10여명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안구조대는 슈트를 착용하고 수영해 현장에 접근했고,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한모씨와 용담면사무소 직원 배모씨와 1명이 인근 주민의 선박을 이용, 협업체 최모씨(41)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안전구급대에 의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신고를 하고 한모씨 등 주변인들이 힘을 모아주어서 안전하게 요구조자를 무사히 구조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관내 군 부대 꽃묘 2500주 공급

완주군이 군 부대에 꽃묘를 전달해 장병들에게 활기를 선사했다. 28일 완주군은 메리골드, 백일홍 등 꽃묘 2500주를 관내 군부대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꽃묘 공급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012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자제되고 있어, 꽃묘가 감성함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순창경찰 여성청소년계, 아동지킴이 활동 개시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4월 7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을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를 위촉, 27일 초등학교 개학일에 맞춰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아동안전지킴이 22명은 순창관내 7개 지역 파출소에 배치되어 매일 오후 2시~5시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주택가 등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지도 등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사랑학재단, 117명에 장학금 지급

진안사랑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11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재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장학생 지원 서류를 접수한 결과 총 172명이 신청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6명과 대학생 117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본 고등학생 장학금은 50만원씩, 대학생 장학금은 타수혜장학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다만, 관내고등학생 신입생 특별장학금은 전국연합학력 평가 실시 후 하반기에 선발·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결론

▲김승규(36사단 근무, 고 김형철·김성이씨 장남)·신혜민(장수군청 근무, 신성용 일요신문 전북본부장·김애란씨 장녀)양= 일시: 6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3층 세인트홀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